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정답

1	①	2	④	3	③	4	⑤	5	③
6	③	7	⑤	8	⑤	9	④	10	②
11	③	12	⑤	13	④	14	③	15	⑤
16	④	17	②						

[1] 2013.10B 독서법

1.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강조하고 있는 독서 태도를 고려할 때, <보기>의 ‘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에는 그 책은 높이면서도 그 마음은 놓치고, 그 글은 외우면서도 그 뜻은 뒷전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생각하면 망령된 짓이라고 하고, 의심하면 참람한 짓이라고 하며, 뜻을 밝히면 군더더기 말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사소한 것까지 억지로 금령을 설치하여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구별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어찌 고인이 후인들에게 바라는 바이겠는가? 사람이 백 리 길을 가는 것에 견주어 보자. 어떤 사람은 수레를 갖추고 마부가 길을 인도하게 하여 하루 만에 바로 도착하였고, 다른 사람은 여러 갈래의 지름길을 탐색하여 어렵사리 도달하였다. 나중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똑같은 길을 가게 하면, 지름길을 탐색하면서 갔던 사람은 분명하게 길을 인식할 수 있어서, 마부가 길을 인도해 주어 갔던 사람이 갈림길에서 길을 헤매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주석만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마음으로 터득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이익, 「논어질서서(論語疾書序)」 -

<보기>

학생: “저는 아직 지식이 부족하여 최대한 많은 책을 읽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는데, 이럴 때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인터넷 검색으로 내용을 대강 파악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읽었던 책인데도 다시 보면 여전히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 ① 자료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 ② 많은 책을 읽기보다는 자신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읽을 책을 선택해야 해요.
- ③ 작가의 생각에만 얹매이지 말고 다른 사람의 관점도 확인해 보아야 해요.
- ④ 지식을 쌓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지식의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해요.

- ⑤ 지나치게 어려운 책보다는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찾아서 읽어야 해요.

[해설] <보기>의 학생은 많은 책을 읽는 것에 목표를 두다보니, 모르는 것이 나오면 스스로 그 의미를 찾기보다는 인터넷 검색으로 대강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길을 스스로 탐색하여 가는 사람처럼 주석이나 인터넷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의미를 파악하라는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6] 2019.03 사회

2.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액면주식 1주는 둘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 3문단에서 1주의 액면 주식은 둘 이상으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 의무를 가진다.
 → 4문단에서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식의 인수 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출자의무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주주는 소유한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익을 배당받는다.
 → 4문단에서 주주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을 포함한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주식회사는 수권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 4문단에서 주식회사에서는 회사가 혼내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이 회사채권자를 위한 유일한 담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수권 자본금이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해야 하는 한도라고 볼 수는 없다.
- ⑤ 주식회사의 정관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 6문단에서 회사에 관한 중요 사항 및 정관의 변동 사항이 생기면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보기>는 갑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작성한 정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2장 주식과 주권

제5조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만 주로 한다.
 제6조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천 원으로 한다.
 제7조 당 회사는 설립 시에 5천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 ① 갑이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수권주식총수는 1만 주이며 수권자본금은 5천만 원이다.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가 1만주이고, 1주의 금액이 5천 원이라면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5천만원이 된다.
- ② 갑이 주식 1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관의 제7조를 수정해도 주식회사의 설립은 가능하다.
 → 2문단에 따르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능하다.
- ③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식 1만 주에 대한 출자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 2문단에 따르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수권 주식 총수 중 발행 되는 주식은 모두 인수되어야 하고, 출자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갑이 세우고자 하는 주식회사는 5천주만 발행하므로 5천 주에 대해서만 출자자가 확정되면 된다.
- ④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며 이 회사의 주주가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은 2천5백만 원이다.
 → 정관에 따라 1주의 가격이 5천원이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이 5천주이다. 따라서 이 회사의 주주가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합은 2천5백만원이 된다.
- ⑤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이 회사의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 2문단에서 수권주식총수 중 미 발행 주식은 추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A 회사는 설립 시에 액면가액 5천 원의 주식을 1백만 주 발행하였고 홍길동은 이 주식의 80%를 인수하여 납입하였다. 이후 A 회사는 B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 하여 25억 원을 납입하였으며, B 회사는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15억 원을 납입하였다. 이후 C 회사는 A 회사의 주식 10억 원어치를 액면가액으로 사들였다. A, B, C 회사는 회사끼리 돌려 가며 출자를 반복하여 자본금에 관한 원칙을 위배했다.

- ① A 회사가 파산한다면 C 회사의 이해 관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군.
→ A 회사가 파산한다면 A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C회사의 이해 관계자는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
- ② B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A 회사의 자본금이 손실을 입을 수 있겠군.
→ B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B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00% 인수 한 A 회사의 자본금이 손실을 입는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③ A 회사의 주주인 홍길동은 B 회사와 C 회사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군.
→ A 회사는 B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전부 인수하였고, B회사는 C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전부 인수하였다. 따라서 A 회사의 주주라면 B와 C 회사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④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80%를 B 회사가 인수하였더라도 C 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달라지지 않겠군.
→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80%를 B 회사가 인수하였더라도, 나머지 20%에 대해서도 출자자가 정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C 회사가 설립될 때 자본금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 ⑤ A, B, C 회사에 출자된 실제 자본금은 90억 원으로 서류상으로 드러난 A, B, C 회사의 자본금의 총합과 동일하겠군.
→ A 회사는 5천 원의 주식 1백만 주를 발행하였으므로 자본금은 50억이고, B회사는 25억, C회사는 15억이다. 즉 이들의 자본은 A 회사에서 반복 출자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 B, C 세 회사에 실제로 투자된 자본금의 총합은 50억이고, 서류상 A, B, C 회사의 자본금의 총합은 90억으로 차이가 있다.

5. ㉠,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 목적은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에 있다.

→ ㉠은 자본금이 실제로 출자되어야 하고, 회사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는 원칙일 뿐,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지는 않는다.

② ㉡을 통해 소액을 가지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2문단에서 최저 자본금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은 자본금 감소를 엄격하게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 ㉡은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자본금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여 발생하는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④ ㉠, ㉡은 모두 채권자가 주식회사의 자금 운용 내역을 알 수 있게 한다.

→ ㉠, ㉡ 모두 채권자가 주식회사의 자금 운용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⑤ ㉠, ㉡은 모두 주식회사의 정관 작성에 관한 원칙으로서 개인 간의 자유로운 주식 양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한다.

→ ㉠, ㉡은 모두 자본금에 관한 원칙이다. 이는 주식회사의 정관 작성과는 관련이 없다.

[6~9] 2004.04 ‘이달, 불일암 인우 스님에게’, ‘김수장의 시조’,
송순 ‘면양정가’

6.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 (가)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② 자연에서 인생의 교훈을 발견하고 있다.

→ (가)는 편지의 형식으로 인생의 교훈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

③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 (가)는 흰 구름에 절이 묻혀 있는 자연속에 사는 삶을, (나) 시는 암자에 앉아서 유유자적한 삶을, (다) 시에서는 속세에서 벗거나 자연을 즐기는 삶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자연을 현실 도피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 (가)~(다) 모두 자연을 현실 도피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자연의 섭리에 빗대어 화자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 (가)~(다) 모두 자연의 섭리에 빗대어 화자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각적 이미지를 잘 활용하였다.

→ ‘흰구름’, ‘송화’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자연물을 통해 심정을 드러내었다.

→ ‘송화가 하마 쇠었네.’에서 자연물을 통해 심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적 공간을 한적한 곳으로 설정하였다.

→ 흰 구름에 묻혀있는 고요한 절을 시적 공간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고요하고 신비한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하였다.

→ 흰구름이 절을 감싸고 있는 분위기가 고요하고 신비하다고 느낄 수 있다.

⑤ 시적 안정감을 위해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였다.

→ (가)에서는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8. ㉠의 의미를 (다)에서 찾을 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점]

㉠은 자연 속에 묻혀사는 즐거움‘을 뜻한다.

① 번로(煩勞)한 마음

→ 번로한 마음은 ‘번거로운 마음’이라는 뜻으로 해당 시에서는 산들을 걸어다니며 자연을 즐기는 마음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취홍(醉興)

→ 취한 홍취로 화자가 자연의 소리에 취한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신선(神仙)

→ 신선은 자연을 즐기는 화자와 비교되는 대상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호탕정회(浩蕩情懷)

→ 호탕정회는 넓고 끝없는 정다운 회포라는 뜻이다. 이는 자연을 풍부하게 즐기는 화자의 마음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역군은(亦君恩)

→ 역군은은 임금에게 감사하는 화자의 마음이다. 임금은 속세에 존재하는 대상으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운 마음과는 연관성이 떨어진다.

[9~12] 2014.10A 작자 미상 ‘매화전’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우의적인 소재를 통하여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다.

→ 윗글에서 대상을 우의적 소재를 통해 희화화하고 있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

②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중략을 중심으로 중략 이전에는 조 병사와 죄씨 부인의 대화, 조 병사와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 조 병사와 주모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중략 이후에는 양유와 동자의 대화, 매화와 매화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역사적 인물을 언급하여 특정 인물을 예찬하고 있다.

→ 역사적 인물은 언급된 바가 없다.

④ 시대 배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윗글에서는 시대 배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⑤ 인물의 외양을 자세히 묘사하여 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윗글에서 인물의 외양묘사는 ‘절색’이라고 표현하는 간단한 수준으로만 묘사하고 있다.

1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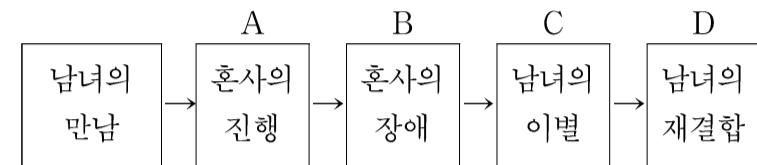
- ① 죄 씨 부인의 동생은 조 병사보다 앞서 장단골에 갔다.
 → 죄 씨 부인은 조 병사가 장단골로 가려고 하자 조 병사보다 앞서 장단골로 가라고 하였고, 이 후 죄 씨 동생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장단골로 찾아갔다.
- ② 매화 모녀는 양유가 있는 방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 호랑이로 변신한 동자가 양유를 가둔 방앞에서 매화 모녀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③ 양유는 동자가 나간 후 호랑이를 물리칠 결심을 했다.
 → 양유는 동자에게 살려달라고 하였으며 동자가 나간 후에도 호랑이가 오는지 의심하고 있다. 즉, 호랑이를 물리칠 결심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주모는 조 병사에게 매화가 천인의 자식이라고 말했다.
 → 주모는 말을 타고 온 조 병사에게 매화가 천인의 자식이나 인물이 절색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⑤ 조 병사의 도움을 받은 매화는 양유와 함께 공부를 했다.
 → 조 병사가 양유를 불러 매화와 더불어 공부하도록 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1. <보기>를 활용해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고전소설에서 혼사 장애담은 남녀 주인공의 혼사가 어떤 장애 요인으로 보류되지만 다시 장애를 극복하고 혼사에 성공하는 이야기를 말한다. 이러한 혼사 장애담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과정에 따라 사건이 전개된다.



- ① 조 병사는 A에 대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죄 씨 부인과 상의했군.
 → 초반부 방사는 부인 죄 씨에게 매화와 양유를 혼인시키는 것에 대해 묻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죄 씨 부인이 매화를 탐내 간계를 부리는 데서 B가 비롯되었군.
 → 죄 씨 부인이 매화를 탐내 자신의 동생과 혼인을 시키고자 하는 것에서 B가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조 병사는 장단골에 다녀온 후 매화의 집안을 문제 삼아 양유에게 C를 명령했군.
 → 조 병사는 장단골에서 매화가 천인이라고 알게 되어 양유에게 매화와 만나지 말 것을 명령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매화는 C의 상태임에도 양유를 그리워하고 있었군.
 → 매화는 '수재'를 보며 양유가 없는 것을 한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양유를 그리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양유는 매화가 방에 들어오기 전에 D를 확신했겠군.
 → 양유는 매화가 방에 들어오기 전까지 매화가 자신의 앞에 있다는 것 또한 확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의 성격 변화를 야기하는 매개가 된다.
- ② 인물들 사이에 쌓였던 갈등이 축발되는 계기가 된다.
- ③ 인물들이 잘못된 당시 세태를 비판하는 수단이 된다.
- ④ 인물들이 상대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는 실마리가 된다.
- ⑤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인물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된다.

[해설] 양유는 방밖에서 들어온 낭자가 매화인 줄도 모르고 살기 위해 낭자에게 사배(四拜)를 한다. 그런데 양유는 갑자기 방안으로 날아 들어온 ‘봉서’를 보고는 낭자를 유심히 보며 상대가 매화와 흡사하다고 혼잣말을 한다. 그 말을 들은 매화가 얼굴을 들어 양유에 대해 언급하고, 둘은 결국 상대의 정체를 파악한다.

양유가 방밖에서 들어온 사람을 보고도 귀신, 호랑이로 생각하고 사배를 하였다. 이 때 갑자기 봉서가 들어오자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매화와 흡사하다는 혼잣말을 하였고, 매화가 양유를 언급하게 되어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게 되었다.

[13~16] 2011.03 과학

13. 윗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시스템 생물학이 출현하게 된 배경
- 1문단에서 시스템 생물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기존 분자 생물학의 주된 연구 방식

- 1문단에서 기존의 분자 생물학의 주된 연구 방식이 환원주의적 방식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③ 시스템 생물학자들의 다양한 연구 성과

- 윗글에서는 시스템 생물학자 중 노블의 실험 과정과 그의 주장만이 드러날 뿐, 시스템 생물학자들의 다양한 연구 성과는 드러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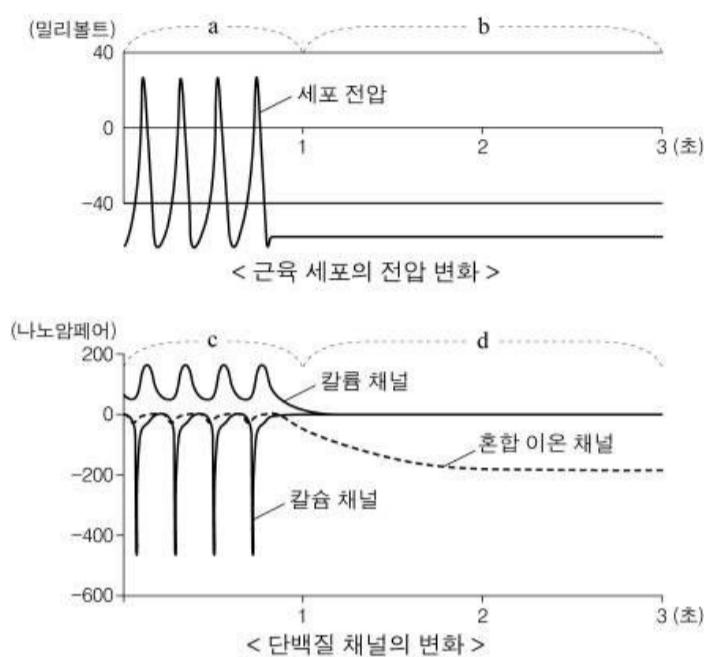
④ 심장 박동 현상에 대한 노블의 실험 과정

- 5문단에서 심장 박동 현상에 대한 노블의 실험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생명 현상의 인과 관계에 대한 노블의 주장

- 유기체 내의 다양한 생명 현상에 대해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노블의 주장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14. 다음은 위에 소개된 실험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의 진동이 b의 편평해진 선으로 바뀐 것은, 실험자의 인위적 조작에 의한 것이다.
 → 5문단에서 네 차례의 진동 후 세포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 세포 전압에서 단백질 채널로의 피드백을 정지시켰다고 한다. 즉, 인위적 조작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a와 c의 진동이 네 차례 지속되는 것은, 심장의 박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a와 c의 진동은 세포 전압과 단백질 채널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므로 심장의 박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c의 진동이 d의 편평해진 선으로 바뀐 것은, 세포 전압에서 단백질 채널로의 피드백이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 5문단에 따르면 c의 진동이 d의 편평해진 선으로 바뀐 것은 세포 전압에서 단백질 채널로의 피드백을 정지시켜 세포 전압의 진동이 멈추었기 때문이다.
- ④ 칼륨 채널의 진동이 세포 전압의 진동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b와 d의 편평해진 선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 5문단에 따르면 단백질 채널의 진동 중에 한 개라도 세포 전압의 진동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단백질 채널은 원래의 진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에 적절하다.
- ⑤ b와 d의 편평해진 선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백질 채널의 영향에 의해 세포 전압의 진동이 발생할 것임을 보여준다.
 → 5문단에 따르면 b, d의 진동이 멈춘 이유는 세포전압에서 단백질 채널로의 피드백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즉, 시간이 지나더라도 세포 전압에서 단백질 채널로의 피드백이 없다면 진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15. ①~⑤ 중, ㉠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① ⑤

→ 환원주의적 방식은 시스템 생물학의 반대개념으로 위 방향으로의 인과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④

→ 생물학적 데이터는 연구의 기반일 뿐, 어떤 인과 관계로 특정 지을 수 없다.

③ ③

→ 매커니즘은 아래 방향, 위 방향의 인과 관계를 모두 아우르는 말로 볼 수 있다.

④ ②

→ 심장 근육 세포의 피드백 효과는 근육 세포에서 단백질 채널로 향하는 피드백으로써 위 방향으로의 인과 관계가 단백질 채널을 통해 이온의 흐름이 생기면 심장 근육 세포에 변화를 주는데, 이는 단백질에서부터 세포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위 방향으로 향하는 피드백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즉, 근육 세포의 피드백 효과는 근육 세포에서 단백질로 향하는 것으로 아래 방향으로의 인과 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①

→ 단백질 채널의 작동은 단백질에서 세포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위 방향으로의 인과 관계라고 볼 수 있다.

16. <보기>에 대해 ‘노블’이 평가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오늘날 유전자는 외부로부터 차단된 ‘로봇’ 속에 안전하게 거대한 집단으로 떼를 지어 살면서, ‘원격 조정기’를 통해 그 것을 조작하고 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도 그리고 내 안에도 있다. 그것들의 유지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이다. 유기체인 우리는 유전자들의 ‘생존 기계’일 뿐이다.

①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유기체의 존재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유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유전자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유기체의 생명 현상을 이해하려 한다는 한계가 보인다.

→ 노블은 위 방향으로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아래 방향으로의 인과관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므로 유기체의 생명현상을 유전자 중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 한다는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③ 시스템 생물학의 관점에서 유전자와 유기체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 유전자를 보존하는 유기체라고 생각하는 <보기>의 생각에 대해 유전자의 유기체의 관계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④ 유전자와 유기체 사이의 상호 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유전자와 유기체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해 부족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할 것이다.

⑤ 유기체의 생명 현상과 관련된 유전자의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

→ <보기>는 유전자의 기능만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위 방향으로의 인과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